

# 상장보험사 오늘부터 릴레이 IR... 車보험료 등 귀추

(기업설명회)

이번주부터 국내 상장 보험사들이 2018년 결산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수익률 공개 방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손해보험 매각과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의 합병 이슈도 주목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계획과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단행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지난해 3분기 IR에서 거론된 바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삼성화재(20일), DB손해보험·한화생명·삼성생명(이상 21일), 현대해상(22일), 오렌지라이프(25일), 미래에셋생명(26일) 등 8개 상장 보험사가 IR를 열고 2018년 경영실적과 2019년 경영전략을 발표한다.

우선 생보업계는 지난해 급감한 수익에 대한 평가와 올해 전망 및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상장 생

‘IFRS17’ 도입 대한 대책 ‘관심’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 이슈

보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4곳은 모두 순이익이 감소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5개 상장 생보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2조6508억원으로 전년(2조7032억원) 대비 524억원(1.9%) 감소했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저축성보험 판매 및 투자손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각각 71.2%, 35.2%씩 줄었다. 삼성생명의 순이익은 1조2632억원에서 1조7364억원으로 4732억원(37.5%) 증가했는데 계열사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최근 금감원이 검토 또는 추진 중인 종합검사와 수익률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

〈상장보험사 2018년 결산 IR 일정〉

| 구분    | 회사명    | 시기         |
|-------|--------|------------|
|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   | 21일 16시    |
|       | 한화생명   | 21일 14시    |
|       | 미래에셋생명 | 26일 16시    |
|       | 오렌지라이프 | 25일 16시    |
|       | 동양생명   | 19일 10시30분 |
|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   | 20일 16시    |
|       | 현대해상   | 22일 16시    |
|       | DB손해보험 | 21일 10시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다. 계획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3월 초에 권역별 검사대상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올해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겪었는데 종합검사가 진행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지난 10일 금융사가 떼가는 수수료의 비율뿐만 아니라 연평균·누적 수익률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입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한 실질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실질수익률 공개 의무화 대상에 생보사가 판매하는 사망이나 질병 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변액보험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대부분 만기 시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롯데손보 매각 관련해 인수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 15일 롯데그룹이 발표한 롯데손해보험 예비인수후보로 MBK파트너스·JKL파트너스·한앤컴퍼니를 포함해 5곳이 선정됐다. 특히 롯데카드 숏리스트에 하나금융, 한화그룹 등이 포함되면서 롯데손보 인수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신한생명과 통합 절차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화재 등

은 지난해 3분기 개최한 IR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손보사는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1조737억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지만 매출액이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해상과 DB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손보사들은 순이익 급감의 원인으로 손해를 상수를 꼽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8~80%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지난해 손해율은 85.2%로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도 각각 85.8%, 83.1%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부진한 실적을 헤쳐나갈 계획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삼성화재, 보험료 변동 NO! 유병자 OK!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18일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90세, 95세, 100세 중 선택 가능하다.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담보 없이 비갱신형 담보로만 이뤄져 있어 최대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층과 유병자가 가입하는 1종 유병

자형과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2종 일반심사형으로 구분된다. 1종 유병자형의 경우 간편심사를 통해 ‘3·2·5’ 질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3·2·5 질문사항은 ▲3개월 내 입원·수술·재검사 의사소견 여부 ▲2년 내 입원·수술 또는 치매 진단·치료·투약 여부 ▲5년 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등 만성신장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이다. 이 상품은 무해지환급형으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 평균 2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김희주 기자

## 신한은행, 12년째 미얀마서 의료봉사 ‘훈훈’

서울대병원과 해외의료교육 진행  
의료기술 전수하고 운동회 등 행사

신한은행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병원과 함께 미얀마 양곤 어린이병원에서 해외의료교육 캠프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자원봉사단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함께 운영한 이번 미얀마 의료봉사단은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복강경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소아 외과 수술을 통해 현지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미술·풍선아트 등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린이병원 환아들과 보호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다.

또 봉사단은 신한은행 양곤지점과 자매결연을 맺은 ‘홀레구 까양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과 장난감을 전달하고 미술·공예, 운동회를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따 툰 썸(Thar Tun Kyaw) 미얀마 보건복지부 사무차관(앞줄 왼쪽에서 아홉번째), 신한은행 자원봉사단,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미얀마 양곤 어린이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미얀마 양곤 어린이병원 의료교육캠프 현장에서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2008년부터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미얀마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현지 어린이병원에서 의료교육 캠프를 포함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양곤 의과대학원의 의료 인력을 서울

대병원으로 초청해 선진 의료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16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미얀마에 지점을 개설했으며, 미얀마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프리미엄카드 2종’

우리카드는 18일 프리미엄 카드 시장 공략을 위해 적립률과 해외 이용 서비스를 강화한 카드의정석프리미엄카드 2종을 출시했다.



매년 연회비에 상응하는 프리미엄 기프트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형은 전월 실적 조건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

이 카드는 ‘카드의정석프리미엄포인트’ (포인트형)와 ‘카드의정석프리미엄마일리지’ (마일리지형)로 구성돼 있으며

8%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해외·면세점은 2.0%, 백화점·온라인쇼핑·커피·영화에서는 1.2%를 적립해 준다. (홍민영 기자

우리은행

원화지속가능채권  
2000억 발행 성공

우리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2.04%의 고정금리로 발행됐다.

지속가능채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엄격한 국제 인증절차를 거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bility)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홍민영 기자

## “아동수당 수급계좌 신청하면 경품 와르르”

KEB하나은행 공기청정기 등 증정

KEB하나은행은 18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손님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수급계좌 신청’ 이벤트를 실시한다.

KEB하나은행은 4월 30일까지 당행 입출금 계좌를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신청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IQ뱅킹)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LG푸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다이슨 퓨어 핫앤쿨 공기청정기 ▲신세계이마트 모바일상품권 5만원 ▲메스킨 라빈스포인트 기프트콘 등 총 500여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 생애 첫 도장’,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하나멤버스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아이 띠 도장을 신청하고, 2주 후에 영업점



을 방문해 5세 이하 자녀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적금 신규를 하게 되면 아이 띠 도장을 제공한다.

또한 하나멤버스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1만 하나머니 바우처를 신청하고, 영업점 방문 후, 자녀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신규 시 부모 중 한 명에게 1만 하나머니 적립해 준다.

(김민호 기자 kmh@

###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강사: 김대익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